

이사회 개최



우리협회의 주요당면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김규태회장 주재로 지난 6월 13일(제11회)과 7월 14일(제12회)에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회

- 휴업 및 폐업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폐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2년 이내(폐업일로부터 3년내)에 본 협회에 재입회 신청을 할 때에는 입회비 전액을 면제한다」는 휴업 및 폐업에 관한 규정 제10조(재입회)를 삭제하여 재입회시기도 입회비를 납부토록 하며, 나머지만은 현행과 같이 하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완료 되고난 후 전반적으로 개정하기로 결의함.
- 지역건축사회 명칭변경 승인의 건
 - 경기도 건축사회 소속 “송탄지역 건축사회”의 명칭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평택지역 건축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함.

제12회

- 전국 공통 운영회비 산출기준표 적용지침(안) 승인의 건
 - 95년도 제2회 임시총회('95. 6. 22)에서 결의되어 7월 1일부터 기 시행중에 있는 『전국 공통 운영회비 산출기준표』에 설계변경(용도, 면적, 설비 등)의 경우에는 증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전국 공통운영회비 산출기준표에 의거 징수하되 단서조항으로 “50㎡이하까지는 면제”하도록 함.
- 협회 회비징수 및 납부방법 운영지침(안) 승인의 건
 - 설계도서 검토폐지 및 사전 설계도서신고를 건축허가 신청후 7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토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본부는 입회비(신규회원 입회시), 월정회비(정회원), 시·도건축사회는 월정회비(정회원), 운영회비(소속 관할지역 업무실적), 전국공통운영회비(타 건축사회 관할 업무실적)로 운영채원을 마련하고, 납부방법으로는 입회비는 신규회원 입회시 납부하고 월정회비는 매월 말일까지 시·도건축사회에서 소속회원에게 고지(지로, 공문서) 등의 방법을

통해 수납하며, 시·도건축사회의 운영회비는 신고된 설계도서 신고서의 면적에 시·도건축사회별 『운영회비 산출기준표』를 적용산정된 금액을 자진납부 및 고지(지로, 공문서) 등의 수단을 통해 수납하도록 하고, 전국 공통운영회비는 소속 건축사회에 신고된 설계도서 신고서 면적에 『전국공통 운영회비 산출기준표』를 적용, 산정된 금액을 해당 회원에게 고지(지로, 공문서)하여 수납후, 신고사항 및 수납회비를 매월말 기준 취합하여 발생지 건축사회로 송부하는 납부방법운영지침을 원안대로 승인함.

- 예산편성위원회 규칙 개정(안) 승인 및 '96 예산편성위원 선임의 건
 - 예산편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그리고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되, 2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본 협회 회장은 예산편성위원회에서 다른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예산편성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96예산편성위원 20인중 당연직 위원15명(시·건축사회 회장)을 제외한 이사 5명의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함.
- 설계도서의 신고사무 취급 규정 개정(안)에 대한 협의
 - 건축사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자료를 검토하여 법이 확정된 후에 정식 부의안건으로 다루기로 협의함.
- 건축사보관리 지침(안)에 대한 협의
 - 건축사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자료를 검토하여 법이 확정된 후에 정식 부의안건으로 다루기로 협의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른 특별점검대책반 운영

우리협회는 지난 6월 29일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태 수습을 위하여 특별점검대책위원회 및 대책반을 긴급 구성하여 붕괴사고 후 현장복구 및 인명구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기술자문을 지원하는 등 신속한 재해수습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특히 우리협회 임원 6인과 재건축위원회 위원 8인, 건축구조전문회원 5인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대책반은 1일 2-3개조를 편성, 매일 현장 상황발생에 따른 기술적 자문 및 합리적인 구조작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서울시 대책본부 상황실담과 함께 상황발생에 따른 안전점검 및 자문활동을 벌였다. 또한 사고 현장 및 난지도 폐기물 처리장에서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따른 시료(코어)를 채취하여 국립건설시험소에 긴급 조사를 의뢰하고, 검·경 합동수사 본부와 사고원인에 대한 협동조사 작업도 벌이고 있다.

30주년 기념 '95전국건축사대회 무기연기

오는 9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협회 창립30주년기념 '95전국건축사대회가 무기연기 되었다. 우리 협회 제 13회 이사회에서는 최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행사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반에게 잘못 비취질 수도 있다고 보고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서도 이번 행사를 연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같이 결정하였다. 이로써 오는 9월로 예정되었던 제주도에서의 행사일정은 모두 무기연기 되었으며 연수교육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행사일정이 발표된 예정이다.

건축사사무소 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통보

우리협회는 건축사법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연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축사사무소 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접수하여 각 시·도건축사회에 통보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95년 1월 5일 개정공포된 건축사법에서 종전의 종합·단독 건축사사무소의 구분과 단독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설계, 공사감리 업무범위 제한이 폐지되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도 폐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 변경 등에 따른 책임한계도 설계·감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당초 설계·감리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의 승계여부 등의 한계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계도서신고는 현행대로 건축허가 신청전에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기타 세부시행 절차 등에 대해서도 동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되기전까지는 현행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95년도 건축사자격(면허)시험 1차 합격자 발표

95년도 건축사자격(면허)시험 1차 합격자 발표가 지난 7월 21일(목) 본부 및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일제히 공고되었다. 지난 7월 9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국대학교에서 실시되었던 이번 건축사 1차시험은 총 7,761명이 지원, 그중 6,427(응시율 82.8%)이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총 2,703명(합격률42.1%)이 합격하였다. 한편 건축사자격(면허) 2차시험은 오는 9월 초에 실시될 예정인데, 시험장소 및 시험일시는 오는 8월 23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본지 95쪽 안내문 참조)

한·몽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서 체결

우리협회 김규태 회장을 단장으로 한 몽고, 중국방문단이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두나라를 방문하였다. 한·몽, 한·중간 건축기술 정보교류 및 우호증진과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위한 이번 방문에서는 몽고건축사협회와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과 건축 및 관심사에 대한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중국을 방문해서는 한·중 양국간 건설기술 교류 및 정보교환, 건축관련 법령 및 제도,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및 운영실태, 기타 양국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감리계약서 제출 의무화

서울시는 내년 1월 6일부터 서울에서 건축허가후 실제 공사에 들어갈때 관할구청에 제출하는 착공신고서에 감리비용이 적힌 감리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착공허가를 철회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 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정받은 전문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하고 진단비용은 시설주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건축사회, 시민건축대학 개강



부산건축사회(회장 박성길)은 지난 7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부터 건축사회관 12층 다목적홀에서 수강생 160명과 우리협회 김규태회장, 부산광역시 이성철 주택국장 등 많은 건축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시민건축대학 개강식을 개최하였다. 1부 개강식에 이어 다과회, 수강생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시민건축대학은 오는 11월 7일까지 열리며 교육내용으로는 실생활과 건축, 건축관련교양, 건축설계·시공, 고건축 대형건축물답사 또는 슬라이드

상영(외국의 건축소개) 등이다. 한편 이번 시민건축대학은 시민의 참여속에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켜 주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지역 건축문화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제주건축사회, 창립30년사 발간 추진

제주도건축사회(회장 백형철)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도 건축사회 30년사를 오는 10월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4×6배판 크기 총 5백쪽 정도로 발간될 이번 제주도 건축사회 30년사는 건축사회 창립에서부터 현재까지 30년동안의 역사적 자료를 집대성하고 도내 건축분야, 제주도 및 우리나라 지정 문화재 자료와 회원작품도 수록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건축사회는 6인으로 구성된 3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하고있다.

부산·경남 건축작가회, '95여름 워크샵 개최

부산, 경남건축작가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5일동안 부산전문대 청학동 연수원에서 95년도 여름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지리산 인근마을의 재구성에 대한 건축적 접근』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도건축가 5명, 세미나강사 7명, 참가학생 26명 등 총 40명이 참가하였으며, 또한 이번 워크샵에 참가한 학생들의 건축적 식견을 넓히기 위해 장백기 교수(부산 전문대)의 『풍수지리와 한옥』, 서치상 교수(순천대)의 『모더니즘 건축의 과학적 환원주의와 패러다임의 변화』, 김정관소장(서일건축)의 『건축풀어쓰기』, 최승원 소장(양가주망)의 『건축기행』을 통한 건축이미지 도출과 작품세계라는 세미나도 함께 진행되었다.

'95건축가 미술전 개최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건축가 미술전이 오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예총회관 1층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네번째인 이번 '95건축가미술전은 그간 건축사들이 바쁜 업무속에서도 순수한 열정으로 창작한 작품들을 전시하게 되는데 특히 올해는 회원전 성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회원가입자의 작품에 한해 전시가 가능하다. 작품제출 요령은 다음과 같다.
◇작품 슬라이드 제출 : '95. 8. 25일까지

- 슬라이드 1매(전시는 3매 이하도 가능)
- 작가사진 1매 및 작가양력 제출
- ◇제출처: 추후 통보예정
- ◇입회비 및 경비: 입회 회원-최초가입시 3만원, 출품 회원-출품비 15만원

동대문구청사,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동대문구청은 청사신축에 따른 현상설계 공모결과를 지난 6월 16일 발표하였다. 대지면적 11,532㎡, 연면적 2,987㎡, 지하2층, 지상12층 규모로 지어질 이번 동대문구청사 현상설계에서는 총 10개업체가 참여하여 8개작품이 공모되었는데,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결과 김지덕(유신건축)회원의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우수작에는 변 용(원도시건축)회원의 안을, 가작에는 양해준(동남아대건축)회원, 최광수(범한건축)회원의 안을 선정했다.

제13회 한·일 도시개발 협력회의 개최

한·일 양국의 도시분야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한 도시개발 협력회의가 지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한국대표 20명, 일본대표 12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양국이 교대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는 이번 회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제도 개편이란 주제로 열렸으며, 특히 광역도시 개발계획과 대중교통환승센터의 건립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의 도시공원 현황 및 개선방안, 하수도처리 합리적 방안 등이 집중 토론되었다. 한편 우리 협회에서는 김우성((주)아키프랜건축사사무소) 회원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명동대성당 축성 100주년기념 건축설계 현상공모

서울대교구 주교회 명동성당 100주년기념회에서는 명동대성당 축성 100주년기념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한다.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이번 현상공모는 1단계로 마스터플랜 및 계획설계를 공모한 후 자격자에 한해 2단계 기본설계를 제출받는다. 응모자

격은 1단계의 경우 건축사가 소속되어 있는 건축설계팀이며 입선작의 경우 당선작 1점에 실시설계권을, 우수작 4점에 각 2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참가접수는 95년 8월 10일부터 19일까지이며 1단계 공모마감일은 95년 10월 31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축성 100주년기념사업회 사무국 전화 774-3890(교환 233,234)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건축학회, 창립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대한건축학회(회장 이명호)는 건축문화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는 국제적 학회로 도약하기 위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10월 20일 국제심포지엄을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대한건축학회 50년사』를 비롯한 학회지 특집호와 학술지 등도 함께 발간된다.

대한주택공사, 제2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21세기 주택정책 및 기술개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회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지난 7월 19일, 20일 양일간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 유럽, 미국, 호주 등 총 8개국 27명의 학자 및 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주택시장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되고 거주자들이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열망이 증폭되는 시기에 맞춰 『21세기 주거생활의 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경험, 주거환경계획법, 다양한 주택개발전략,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위한 생산 및 유지관리체계, 양질의 주택건설을 도모하는 주택관련 법규제 및 지원체계, 환경보존과 환경공생을 위한 관련기술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성동구 건축대전 개최

성동구는 성동구민의 건축의식 수준향상과 건축문화 활성을 기하기 위한 성동 건축대전을 개최한다. 성동관내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일반부와 성동구청사계획, 성동구 주거계획 또는 문화 휴식공간, 도시설계안, 도시형 아파트공장 등의 주제로 학생과 신인부로 나누어 개최되는 이번 건축대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받으며 10월 20일까지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참가자격으로 일반부는 성동구내에 건립된 건축물의 건축사, 건축주, 시공자이고 학생·신인부는 등록된 건축사가 아닌자로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설계사무소 직원이다. 또한 오는 10월말에 있을 시상식에서는 일반부 최우수 1점과 우수건축물 3점에게는 각각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동판이 수여되며 학생·신인부 금상 1점에는 상금 4백만원, 은상2점에 각 3백만원, 동상 2점에 각 2백만원, 가작 4점에 각 1백만원이 수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건축과(T: 292-7390~3)로 문의하면 된다.

『중국 조선족 자치주 종합 개발 계획』 국제 토론회 개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유 완)는 오는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7박 8일동안 중국 연길시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중국 조선족 자치주 구역 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중국 길림성에 살고 있는 조선족 자치주에 대한 국토종합개발 계획이라는 대주제하에 농업, 공업, 교통, 운수, 통신 등 도시화 발전계획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토론하게 되는데 3개국어(중국어, 한국어, 영어)로 진행된다. 한편 토론회가 끝나면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이 수록된 최종보고서(국문판, 영문판)를 발간할 예정이다.

인하대 건축공학과, 제6회 인하 워크샵 개최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학과장 동정근)는 지난 6월 24, 25일 양일간 건축공학과 설계실에서 학부학생 및 대학원생, 교수, 일본건축가 Hideyuki Yamashita를 초청한 가운데 소극장 내부의 무대세트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6회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건축전반에 관한 문제점들을 종합, 분석, 해결하는 능력배양과 초청강사와 학생이 공동작업을 통해 건축의 이론과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체험하고, 공동작업을 통해서 각 학년, 대학원, 교수, 초청강사간의 연계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강릉지역 건축사회 이전

강원도건축사회 강릉지역건축사회의 주소가 7월 20일부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변경전	변경후	비고
강릉시 옥천동 81-2	강릉시 성내동 25-2	(0391)41-7371